

청소년 사목과 시노달리타스: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의 사목적 적용에 관한 성찰*

정규현·오세일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들어가는 말: 청소년 사목의 현황 분석

1. 시노달리타스와 『한국 청소년 사목 지침서』에 따른 청소년 사목

1.1. 또래 사도의 양성

1.2. 동반자 사목

1.3.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청소년의 ‘판’

2. 청소년 신앙 생활에 관한 통계 분석

3. 시노드적 동반 여정의 모델 - 청소년 사목 판의 구체화

나가는 말: 성령 안에서 동반 여정을 향한 새로운 모색

* 이 논문은 2023년 4월 29일 개최된 “지쳐 가는 청소년 사목의 EXODUS!!”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보완한 논문이다.

들어가는 말: 청소년 사목의 현황 분석

성교회에서 청소년 사목은 특히 21세기에 들어서서 점점 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어왔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와 세속화, 성(性)과 표현의 자유, 개인주의, 물질주의, 학벌과 취업의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청소년들의 삶의 자리는 위축되어 가고, 교회 안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사목은 일부 사제의 열정에 의존할 뿐 대체로 주변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간 청소년 사목의 일관성 있는 비전과 중장기 계획에 따른 꾸준한 연구와 적용이 교구와 본당 등의 사목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이뤄지기보다는 사제 개인의 능력과 관심, 헌신과 취향 등에 따라 통합되지 못한 채 단편적, 분절적으로 이어져 왔다. 더욱이 본당 여건에 따라 열악한 재정 문제, 인력(봉사자 및 교리교사) 확보나 집행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 등에 의해 청소년 사목 프로그램에 관한 안정적인 지원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청소년 사목의 쇄신을 논하기에 앞서 면밀한 실태 진단이 필요하다. 이는 본 연구가 주목하는, 청소년 사목의 새 비전과 방법론을 제안하는,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이하 지침서)의 방향과 시노달리타스의 함의가 만나는 지점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청소년 사목의 추이와 실태를 양적, 질적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고, 특별히 시노달리타스의 관점에서 청소년 교육의 쇄신에 필요한 실천적 과제들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표 1>은 전국 13-18세 청소년 인구(2008-2022년)와 해당 연령의 가톨릭 청소년 관련 주요 통계치를 보여준다. 기실 한국 가톨릭교회가 제공하는 통계자료는 전통적인 주일학교 체제하에서 생산되는 자료이다. 청소년 사목을 주일학교 체제로 환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지난 몇 십년 간 교회가 공을 들여 시행한 청소년 사목 중심축의 실제적 변화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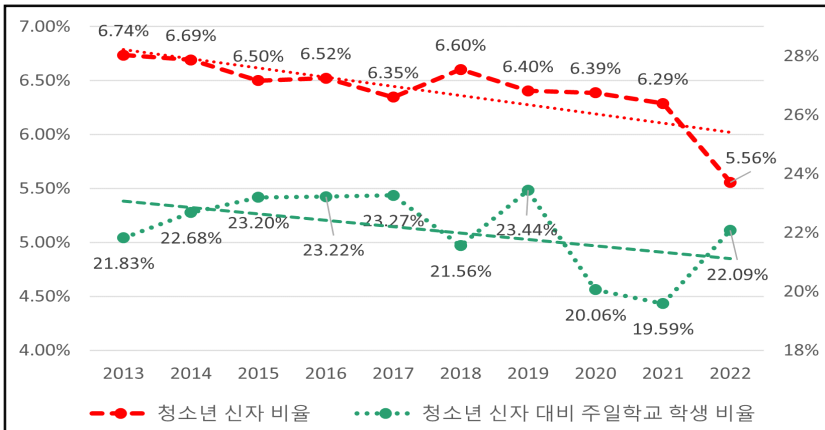
아울러 <도표 1>은 <표 1>의 통계치를 기준으로 확인한 청소년 신자 비율과 청소년 신자 대비 주일학교 학생 비율의 추이를 보여준다.

<표 1> 한국 가톨릭 청소년 주일학교 관련 주요 통계

연 도	청소년 인구	전국 청소년 신자	주일학교 학생	주일학교 교사
2008	4,197,599	자료 없음	71,452	7,024
2009	4,242,291		67,204	7,148
2010	4,222,415		67,096	7,039
2011	4,135,258		62,525	7,097
2012	4,042,167	274,992	60,439	7,101
2013	3,967,080	267,256	58,329	7,075
2014	3,817,709	255,489	57,955	7,031
2015	3,627,107	235,786	54,702	7,014
2016	3,449,057	224,998	52,255	6,674
2017	3,282,502	208,335	48,480	6,452
2018	3,096,947	204,480	44,079	6,442
2019	2,907,136	186,182	43,637	6,308
2020	2,843,464	181,636	36,444	5,807
2021	2,816,846	177,125	34,707	5,311
2022	2,770,796	153,995	34,015	5,310
08년 대비 22년 감소율	-34% (12년 대비 30.3%)	-44% (12년 대비)	-52% (12년 대비 43.72%)	-24%

자료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연도별 『한국 천주교회 통계』, (명)

<도표 1> 청소년 가톨릭 신자 비율과 주일학교 학생 비율 추이



먼저 전국 청소년 인구의 자연 감소를 (34%)보다 가톨릭 청소년 신자의 감소율 (44%), 주일학교 학생 감소율 (52%)이 더 크다. 특히 ‘청소년 신자’ 비율은 팬데믹 사태를 거치며 2022년 5.56 %로 급락했다. 아울러 주일학교에 등록된 청소년 신자 비율 역시 팬데믹 사태 동안 급락하였다가 2022년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래 <표 2>와 <도표 2>는 서울시 청소년 인구와 대비하여¹⁾ 서울대교구의 청소년 주일학교와 관련된 여러 통계치를 보여준다. 전국 통계와 유사하게 서울 청소년 인구의 자연 감소율 (44%)보다 청소년 교적 감소율 (47%), 주일학교 학생 감소율 (51%)이 더 크다. 청소년 신자 비율도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인다.

한편 희망적인 지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도표 2>를 보면 ‘교적 대비 청소년 미사참여’ 인원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교구에 한정된 자료이긴 하지만, 주일학교 등록률은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주일 미사만이라도 참석하는 청소년의 수는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런데 팬데믹 시기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안 사목으로 새롭게 대처하지 못 한 일선 본당에서는 청소년 사목이 더욱 침체된 상황이다.²⁾ 2-3년 동안 신앙생활이 중단되고 방치되었던 적지 않은 가톨릭 청소년들은 대면 신앙생활과 교리교육을 하나의 짐으로 느끼고 있었다. 부모 또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청소년의 신앙생활이 팬데믹 사태로 멈추게 되자 신앙생활은 안 해도 그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

1) 참고로, <도표 1>에서 ‘청소년 신자 대비 주일학교 학생 비율’과 <도표 2>에서 ‘청소년 교리교육 대상자 대비 학생 비율’은 일관되지 못한 골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통계집계 방식의 문제로서 분모인 모수의 문제로 보인다. 자료 집계 방식에 대한 설명이 공개되지 않아 예단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교적 전체에 해당하는 청소년 신자를 분모로 사용했는지, 판공성사로 집계한 미사참여를 지속하는 청소년 신자를 분모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결과치가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각 본당의 현황보고 방식에 관해 확인한 결과 정확한 통계 작성 지침이 없어 청소년의 주일미사 참여자수를 두고 최대치를 보고하는 사례나 완전 이탈 신자에 대한 교적 정리로 인하여 모수가 줄어든 탓도 있을 수 있다. 이에 자료의 타당도(validity)와 신뢰도(reliability)를 염두에 두고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회 내 통계 자료를 집계하고 분석하는 방식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력이 매우 필요하다.

2)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2020년 청소년 사목 현황』, 『2021년 청소년 사목 현황』에 의하면 2020년 43%, 2021년 33%의 본당이 팬데믹 시기에 대면·비대면 어떤 방식으로든 교리 진행을 하지 않았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2020년 청소년 사목 현황』, (서울: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22;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2021년 청소년 사목 현황』, (서울: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23.)

3) 해당 인터뷰 인용 자료는 연구자가 초점 그룹 인터뷰와 개별 인터뷰를 통해 취합한 자료이다. 질적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 팬데믹 이후 청소년 사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본당을 파악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회과학 연구자로서 필자는 사례로서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는 캐주얼한 옷차림과 편안한 언행을 갖추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약 1시간 정도씩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팬데믹 이전 신앙생활과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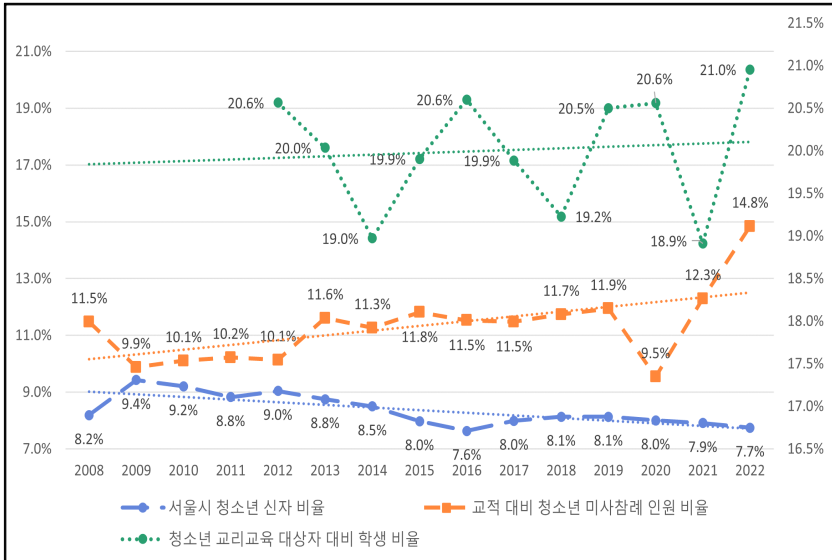
<표 2> 서울대교구 청소년 주일학교 관련 주요 통계

연 도	서울시 청소년 인구	서울대교구 청소년 교적수	청소년 주일 미사 평균 참례자	주일학교 학생	본당별 평균 주일 청소년 미사 참례자	청소년 교리교사
2008	794,690	65,056	7,467	14,618	39	1,424
2009	792,954	74,729	7,384	13,655	37	1,463
2010	777,794	71,595	7,237	13,311	36	1,395
2011	749,601	66,142	6,763	12,253	32	1,403
2012	720,574	65,161	6,605	12,130	31	1,389
2013	696,908	60,991	7,083	11,165	35	1,445
2014	662,703	56,321	6,346	10,123	33	1,417
2015	623,509	49,728	5,876.5	10,007	29	1,365
2016	586,385	44,771	5,161.5	9,816	27	1,274
2017	554,390	44,297	5,086.5	8,785	25	1,239
2018	518,094	42,134	4,946	8,074	23	1,306
2019	482,659	39,263	4,689	7,990	22	1,228
2020	467,667	37,434	3,572	7,733	17	1,107
2021	456,799	36,126	4,443	7,085	22	1,043
2022	443,809	34,390	5,105	7,128	25	1,051
08년 대비 22년 감소율	-44%	-47%	-32%	-51%	-36%	-26%

자료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연도별 『한국 천주교회 통계』,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연도별 『청소년 사목 현황』, (명)

일학교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남녀 각각 3명의 인원을 인터뷰하였고, 주일 학교 교사 남녀 각각 1명, 학부모 각각 1명을 추가로 인터뷰하였다. 질적 자료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 간 삼각측정을 통해 해석의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도표 2> 서울대교구 청소년 주일학교 관련 통계 추이



연구자: 주일학교 활동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을까요?

학생: 딱히 없기는 한 거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연구자 :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학생: (교리 반이 운영되지 않는) 지금도 딱 만족스러운 거 같아요 음... 그냥 딱히 (교리) 수업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연구자: 교리 수업에 얻고 싶은 게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학생: 많이 즐겼던 기억이 있어서... (멋쩍은 웃음)

연구자: 그러면 학생에게 주일학교가 필요하게 느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 약간 지루하지 않고 딱 학생들 위주로 딱 맞춰서 하는 부분이 좋을 거 같아요
(고, 여성, 굵은 글씨 연구자 강조)

(주일학교 운영이나 활동에 관해서 바라는 게) 딱히 없어요...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뭔가 부족한 것도 느껴지지 않아서요 (고, 남성)

처음에는 매일 미사도 다 못 왔으니까, 매일 미사를 보면서 같이 미사 봉헌하고 그렇게... 방송 시청을 하면서 유튜브도 보고 방송도 보고 하면서 처음에는 미사를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

도 1년 정도 지나니까 아이들이 뭐 이제 시들해지는 거예요 (…). **제가 옆의 부모님들을 보면 아이들과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다시 나와도 된다 했을 때, 안 나간다, 성당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 지금까지 안 갔는데 갑자기 그러냐..** 그런 거로 부모님과 많이 싸우고 신부님과 문 의도 하고 그런 게 많았었어요 저한테도 얘기 많이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올 수 있는 분위기가 거의 제로... (청소년 자녀 2명을 둔 청소년 분과장)

통계주세와 인터뷰로 확인되는 침체된 청소년 사목, 그럼에도 회복의 씨앗으로서 다시 교회로 발길을 돌린 청소년들과 이들을 위한 교회의 사목과 양성을 두고 교회는 새로운 ‘때(kairos)’를 맞이하고 있다. 팬데믹 경험은 기존의 방식과 접근을 전면적으로 재고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줌으로써 실질적인 청소년 사목과 양성에 관한 재고와 쇠신의 과제를 주제화해주었다. 기존의 우려 섞인 청소년 사목 위축과 쇠락의 문제는 더욱 가속화되었고,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교회로 하여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사목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전면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⁴⁾

한국 가톨릭교회는 이 절박한 때를 맞이하여 2021년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를 발간했다. 본 연구는 지침서를 바탕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마태 9, 17) 담듯, 팬데믹 이후의 새 국면에서 새 차원의 청소년 사목과 양성을 위해 어떤 사목을 펼쳐야 할지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고 ‘환대와 동반의 시노달리타스 사목’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교회 쇠신의 화두로 부상한 교회의 본래적 “삶과 활동의 방식(modus vivendi et operandi)”⁵⁾인 시노달리타스와 지침서 내 청소년 사목의 핵심 요소를 ‘또래 사도의 양성’과 이를 위한 ‘동반자 사목’,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관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분석한다. 둘째 ‘청소년 사목 지침서를 위한 양적 연구’와 사목 사례들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신앙 성숙을 이루는 요소와 그것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끝으로 청소년 사목 차원의 환대와 동반의 시노달리타스 사목 모델을 제안할 것이다.

4) 정규현·오세일,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 사목 패러다임의 전환」, 『가톨릭 신학과 사상』, 85(2021), 147-209.

5) 교황청 성직자성,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봉사하는 본당 공동체의 사목적 회심』(*La Conversione Pastorale della Comunità Parrocchiale al Servizio della Missione Evangelizzatrice della Chiesa*, 2020),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20), 6항.

1. 시노달리타스와 『한국 청소년 사목 지침서』에 따른 청소년 사목

팬데믹 사태는 사목에 있어 전면적인 쇄신을 위한 “구조 개혁”⁶⁾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추동하고 있다.⁷⁾ 이는 청소년 사목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더 시급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교회의 쇄신 원리는 시노달리타스라 할 수 있다.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는 본디 ‘원(syn) + 호도스(hodos)’의 어원을 갖는데, 이는 곧 ‘함께 걷는다’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노드 교회는 ‘동반 교회(the church of companionship)’를 뜻하기 때문에, 시노달리타스는 다면적인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과의 사목이라는 차원에서 ‘동반 여정(accompanied journey)’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도 있다.

시노달리타스를 통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시한 근본적인 화두는 교회가 성직주의, 관료적 행정제도 등에 갇혀 있지 않고,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성령님의 영감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로 ‘친교’를 나누며 기쁘게 ‘참여’하고 각자의 ‘사명(미션)’에 따라 소명(성소)을 갖고 ‘하느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펼쳐 보이는 데에 있다. 이를 청소년 사목의 관점에서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개념이 바로 ‘또래 사도’이다.

1.1. 또래 사도의 양성: 신앙의 주체로서 친교, 참여, 사명 수행

시노달리타스의 세 구성 요소인 친교, 참여, 사명(미션)을 통합적으로 내면화한 청소년을 최종 지침서 발간 이전 내용의 일부를 배포한 『복음화 사명과 청소년 사목』에서는 “또래 사도”⁸⁾라 칭한다. 이들을 양성하기 위해 지침서는 무엇보다 청소년 사목을 “청소년이 청소년과 세상 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교육적으로 동반하는 사도적 활동”⁹⁾으로 정의한다. 이는 그리스도인 주체로서 이웃과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복음의 기쁨을

6)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Evangeli Gaudium, 2013),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27항.

7) 정규현·오세일,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 사목 패러다임의 전환」, 147-209.

8)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 『복음화 사명과 청소년 사목』,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 2018), 26항.

지침서가 작성 중이던 2018년, 지침서의 일부가 『복음화 사명과 청소년 사목』이라는 소책자로 발표되었다. 여기서는 ‘또래 사도’로 표현되었으나 최종 지침서에는 ‘청소년 사도’로 변경되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인격적 성장에 있어 또래 관계가 갖는 준거 집단으로서의 고유한 중요성에 주목하여 단순 연령 구분의 의미가 짙은 ‘청소년 사도’ 보다는 관계성의 함의를 보다 더 담고 있는 ‘또래 사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9)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2021), 24항.

선포하는 전인적 성장을 지향한다. 청소년은 더 이상 단순한 피교육자의 신분으로서 교회의 전망과 희망을 강제로 주입받거나 기계적으로 이식받는 것이 아닌 존재로 부각된다. 이들은 “동등한”¹⁰⁾ 하느님 백성으로서 능동적인 참여와 연대로써 고민과 성찰, 식별¹¹⁾을 나누는 친교를 통해 공동선을 향한 투신을 의식화하며 하느님을 향한 발걸음에 희망을 걸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사목은 무엇보다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신뢰하여 그들이 청소년 사목 활동에서 더 주도적 역할”¹²⁾을 희망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데 힘을 쓸 필요가 있다. 이 양성의 여정은 시노달리타스를 요청한다. 청소년 각자가 다양한 참여를 통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참된 자아와 소명, 비전을 구체화시켜 “사회 개혁의 참여자”¹³⁾로서의 사명을 자임하는 또래 사도로서 자신의 삶을 가꾸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친교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노달리타스 관점에서 청소년은 청소년 사목에 있어서 “복음화의 주체”¹⁴⁾로 인식된다. 청소년 사목의 주체로서 ‘또래 사도’는 교회의 사명 실천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하느님과의 고유한 내적 친교를 체험하면서 동시에 교회 구성원인 또래들과의 친교를 확장하는 가운데 고유한 사명 실천에로까지 나아간다. 이로써 청(少)년의 고유한 젊음은 교회가 부패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며, 교만과 분열을 피하고, 증언의 힘을 기르며 가난한 이들과 버림받은 이들의 곁을 지키고 정의에 헌신하는 데에 고유한 역할을 자임하는 가치를 지닌다.¹⁵⁾

한편 청소년의 자신들의 사목에 대한 주도적, 능동적 참여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신앙(faith)의 실존적 구성 요건이다. 하

10) 김관수,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관점에서 바라본 동반자 사목에 필요한 청소년 사목의 실천적 요소, 청소년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지쳐가는 청소년 사목의 EXODUS!!』, (서울: 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 및 돈보스코 청소년영성사목연구소), 129.

11) 오세일, 「시노달리타스를 향한 사목적 회심: 이나시오 영성과 식별의 실천적 적용」, 『신학과 철학』, 42(2022), 339-376.

12)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91항.

13)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 『복음화 사명과 청소년 사목』, 11항.

14) 이진옥, 「복음화의 주체로 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청소년 -교회의 쇄신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에 관한 연구-」, 청소년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지쳐가는 청소년 사목의 EXODUS!!』, (서울: 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 및 돈보스코 청소년영성사목연구소), 79.

1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Apostolicam Actuositatem, 1965), 12항; 프란치스코,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Chrisus Vivit, 2019),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37항.

느낌과의 인격적 만남인 ‘믿음’, 곧 나의 심장(*cor*)을 내어 주는(*dare*) 신앙(*credo*)은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응답”¹⁶⁾으로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움직여진 의지의 명령에 따라, 하느님의 진리에 동의하는 지성적 행위”¹⁷⁾이자 하느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¹⁸⁾ 전인적-인격적 행위이다.

지침서는 이러한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삼위일체 하느님의 현존을 확신하고, (...) 그분과의 만남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¹⁹⁾으로 제시한다.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사목과 양성은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신의 참여적 신앙 활동으로서 하느님과의 내적 친교와 신뢰를 증진시켜 하느님과 같은 것을 바라고 같은 것을 하게끔 하는 원동력을 마련한다. 이로써 하느님에 관한 신앙 감각(*sensus fidei*)을 민감케 하며, 특정 교리나 실천이 복음과 사도 신앙에 따른 것인지에 관한 식별(분별, *discernment*)²⁰⁾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여정이 응축된 삶의 자리로부터 체감되고 식별되는 하느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는 영적 민감성을 강화해준다.

청소년의 참여와 친교로 말미암은 건강하고 굳건한 신앙 감각은 자신의 고유한 삶에 관한 하느님의 창조의 원의와 사명에 대한 영적 민감성 또한 강화해준다. 이러한 영적 민감성, 곧 신앙 감각은 그들을 둘러싼 가정의 해체, 대학 입시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 시스템, 열악한 청소년 노동 환경, 대중 매체의 영향, 사회적 불확실성 등의 외적 환경을 재의미화하게 한다.²¹⁾ 그리고 세속화와 상대주의적 주관주의, 무분별한 소비주의, 과학만능주의, 도덕적·실천적 상대주의, 무신론적 성향의 철학적 인문학 등의 이념들을 신앙과 대조 비교하면서 자기의 고유한 삶의 가치와 비전을 형성하도록 돕는다.²²⁾

지침서는 궁극적으로 청소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calling*)’을 깨닫고 생명 문화를 이루는 사도로서 자신의 삶을 가꾸고 또래들과 함께 동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²³⁾ 즉

16) 『가톨릭 교회 교리서』 (*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1997), 26항.

17) *Ibid.*, 155항.

18) *Ibid.*, 1064항.

19)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92항.

20)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 감각』 (*Sensus Fidei in the life of the church*, 2014), 송용민 옮김,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6), 49항.

2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10항.

22) *Ibid.*, 12항.

23)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복음화 사명과 청소년 사목』, 10·16항.

음의 문화 속에서 이기적 개인주의와 각자도생, 공리주의에 매몰되어 경제적 안녕과 권력 지향만을 추구하는 삶의 목표로부터 한 걸음 벗어나서 복음의 기쁨을 맛들이고 나누며 펼쳐 보이는 생명 문화 건설을 위한 사도이자 개혁가로서의 소명이 형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청소년 사목은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신뢰하여 그들이 청소년 사목 활동에서 더 주도적 역할”²⁴⁾을 희망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동반 여정이다. 이 여정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그분으로부터 받은 참된 자아와 소명, 비전을 구체화하여 자신의 전문적 직업과 삶을 가꾸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체험할 수 있음에 희망으로 함께하는 친교, 참여, 사명(미션) 증진의 ‘동반 여정(시노달리타스)’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소년 사목과 또래 사도 양성은 신앙 안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좇는 행복과 가치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을까?’, ‘내 꿈과 희망이 비록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의하면 하찮아 보일지라도 진정하고 고유한 나의 소명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등 삶의 가치에 관한 질문을 대면하고 이를 영적으로 체험하며 확신할 참여의 자리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꾸신 창조의 꿈”²⁵⁾이 세대를 거듭하여 청소년에게 이어져 그들이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꿈, 더 나은 삶을 위한 꿈”²⁶⁾을 꾸도록 그들의 주체적 동반 여정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즉 주님의 부르심과 자신의 소망을 탐색하고 일치시키는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동반자를 필요로 하는데 이들은 가치 질문을 건네고, 신앙 감각을 자극하며 청소년 신앙 성숙의 동반 여정에 함께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2. 동반자 사목: 가정-사목자-청소년 사목 봉사자(교리교사)의 동반

청소년 사목은 무엇보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동반자 사목’을 중시한다. 시노달리타스 관점의 청소년 사목은 청소년의 주도성과 능동성을 강조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 여정에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의 인격적 동반’ 또한 매우 중요하다.²⁷⁾ 지침서가 지적하는 바

24)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91항.

25) 프란치스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194항.

26) Ibid.

27) 사목자의 인격적 동반에 관해서는 아래 논문 참조할 것. 정규현·오세일, 「사제는 청년들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시노달리타스를 향한 사제 리더십 분석」, 『신학과 철학』 41(2022), 3-42.

와 같이 청소년들은 세속 사회에서도 활동하면서 그 영향을 받고, 또 그 나름의 의식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외적 영향을 두고 신앙적 성찰과 소명 의식 형성을 위해서 청소년의 주체성은 온전히 독립적인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격적 동반을 통해 적절히 자극받고 양성받는 공동체적 주체로서 동반자를 필요로 한다.²⁸⁾

시노달리타스의 탁월하고 전형적 표상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마르 16, 12-13; 루카 24, 13-35)’를 동반하시며 변화시켜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지침서는 청소년 사목의 핵심 원리로서 “복음화를 위한 동반자로서의 현존”²⁹⁾을 사목적 관계의 중심 과제로 제시한다. 여기서 “동반자란 상호 간의 존엄성과 동등성을 이루는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의미”³⁰⁾한다.

윤만근은 청소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개방성 안에서 다가가고 경청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필수적인 동반 요소로 제시하면서, 청소년 사목의 동반성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³¹⁾ 요컨대 청소년 동반은 “만남, 삶의 질문과 경청, 신앙의 가르침, 성찬례 체험, 사명”³²⁾의 다섯 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시공간 내에 동반자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만남에서부터 동반은 시작된다. 이후 친교의 심화를 통해 청소년은 삶의 자리와 신앙 경험에서 촉발되는 의문을 허심탄회하게 밝히고, 동반자는 그것을 경청한다. 이어서 동반자는 사랑에 기반한 가치와 신앙의 질문을 건네 그들의 영적 민감성을 자극하고, 신앙 감각을 활성화시켜준다. 다음으로 성찬례를 통해 청소년들이 주님과과의 인격적 현존을 체험케 하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일치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총체적 과정의 반복을 통해 청소년이 주님의 사명을 자신의 소명과 일치시키며 또래 사도로서 성장하도록 이끈다.

이와 같은 동반의 뭇은 무엇보다 가정 내 부모와 사목자 및 청소년 사목 봉사자(교리 교사)에게 있다.³³⁾ 지침서는 통합 사목적 차원에서 신앙 공동체 모두가 청소년 사목에 함께 참여하는 모델을 요구함과 동시에³⁴⁾, 특별히 부모와 청소년 사목 봉사자를 두고 청소년

28)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87항.

29) Ibid., 23항.

30) Ibid., 23-51항.

31) 윤만근, 「동반자 사목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청소년 사목의 실천적 요소」, 청소년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지쳐가는 청소년 사목의 EXODUS!!』, (서울: 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 및 돈보스코 청소년영성사목연구소), 113-114.

32) 윤만근,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에 등장하는 ‘동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목적 적용: 돈 보스코의 교육학을 바탕으로」, 『신학전망』, 219(2022), 127.

33)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83항.

년의 동반자이자 그들 또한 사목의 대상으로서 청소년 사목의 “간접적 대상자”³⁵⁾로 상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만나는 그들이 청소년과 함께하며 자신들도 저마다의 신앙 여정을 걸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동반 여정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가정 내 부모의 청소년 동반과 교회 공동체에서의 사목자와 청소년 사목 봉사자의 동반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포괄적인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청소년 사목을 지향하는 것이다.

특별히 교회는 “가정은 언제나 청소년들을 위한 첫째가는 준가”³⁶⁾로 여겨왔다. 모든 개인에게 신앙의 최초 학교에 해당하는 “가정 교회”³⁷⁾의 중요성이 청소년 사목과 양성에 매우 중대한 자리를 차지한다.³⁸⁾ 하지만 가정 공동체의 와해나 신앙 교육의 부재 및 주일학교로의 위임³⁹⁾과 세대 단절적 본당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가정 내 부모의 신앙적 동반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성인 신자인 부모 또한 영적 성숙이 미진한 상태에서 청소년 자녀에 대한 일방적인 신앙생활의 강조와 교회와 가정 내 언행불일치⁴⁰⁾와 이중적 모습은 자녀로 하여금 신앙에 대한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에 부모의 가정 내 신앙적 동반은 그들에 대한 애착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동등의 인격적 동반과 부모 자신의 신앙 교육과 영적 성숙을 함께 하는 데에서 가능할 수 있다.⁴¹⁾

다음으로 교회 공동체 내 공적 책임을 맡은 사목자와 청소년 사목 봉사자 또한 주요한

34) Ibid., 99항.

35) Ibid., 72항.

36) 프란치스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62항(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96항 재인용).

37)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97항.

38)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간주된 사회 교리』(*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2004),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239항; 요한 바오로 2세, 『현대의 교리교육』(*Catechesi Tradendae*, 1979),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0), 68항;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75항; C. Smith / J. Hill, / K. Christoffersen, *Young Catholic America: Emerging adults in, out of, and gone from the Chur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C. Smith / P. Snell, *Souls in transition: The religious and spiritual lives of emerging adul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39) 부모 본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깊이가 얇은 상황에서 자녀들은 청소년·어린이 미사에 보내놓고 성당을 매개로 관계 맺은 부모들끼리는 근처 카페에서 자녀들을 기다리는 상황도 보고되고 있다. 마치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놓고 주변에서 모여 기다리는 상황이 신앙생활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40) 김관수,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관점에서 바라본 동반자 사목에 필요한 청소년 사목의 실천적 요소」, 130.

41)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72항.

청소년 사목의 동반자이다. 사목자와 청소년 사목 봉사자는 가정 교회가 굳건하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이나 부모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신뢰하는 어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또래들과 기쁘게 어울리며 직간접적으로 하느님을 체험케 해주는 판을 제공하는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교회 공동체를 “교육 사목 공동체”⁴²⁾로 구성하여 인격적 동반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신앙 소속감을 확립해주고 자신의 어려움과 고민, 갈망과 갈등을 털어놓으며 그 안에서 위안과 사랑을 체험케 하는 탁월한 역할을 부여받았다. 즉, 사목자와 청소년 사목 봉사자는 정형화된 신앙 조목의 집단적 전달과 습득을 넘어 개별적이고 공동체적 관계를 통해 청소년들이 ‘인격적 하느님 체험(personal experience of God)’을 통해 또래 사도로 양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극하는 동반자로서 불림 받은 것이다.

요약하면 청소년 사목은 청소년의 주체성과 자율성⁴³⁾, 능동성에 긍정하면서도 또한 그들의 자유의지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동반자성을 배우고 양육할 사명을 공유한다. 동반자성(companionship)은 위계적 서열 구조에서 어른들이 주도성을 갖고 시혜적으로 지원하는 태도가 아니라, 시노드적 친교의 정신과 공동 식별을 통해서 성령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저마다 (또한 우리에게 함께 주어진) 자기 길”⁴⁴⁾을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존중하는’ 자세를 필요로 한다.⁴⁵⁾ 이로써 교육 사목 공동체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상호 배움의 과정에서 능동성과 주님 안의 주체성을 자극받고 소명을 찾아 사명을 실천한다.

그리고 모든 교회 구성원이 동반자로서의 사명에 불림 받았지만, 특별히 가정 내 동반을 담당하는 부모의 동반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교회 공동체 품에서 그들을 동반하고 활동의 장을 마련해주는 사목자와 청소년 사목 봉사자(교리교사)의 고유한 역할도 함께 해야 한다. 이로써 부모와 사목자, 청소년 사목 봉사자(교리교사)들은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42) Ibid., 102항.

43) 현대사회에서, 특히 청소년 세대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율성’으로 부각되고 있다. 자기의 삶 안에서 직업이나 취미, 휴식과 여가마저도 ‘주체적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선택할 때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경험 조사 연구 결과가 매우 많다. 더 이상 ‘전통과 순응’만으로 통하지 않을 때 교회에는 성령의 영감 안에서 ‘창조적 긴장과 쇄신’이 절실히 요청된다. (오세일·고태정·전승봉, 「청년세대를 위한 통합적 삶의 질 연구」, 『사회과학연구』, 27(2, 2019), 88-121.)

4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Lumen Gentium, 1964), 11-13항.

45) Jung Kyuhyun / Oh Seil, “Enchanted companionship of Korean Catholic youth amid compressed individualization”, *Sociology Compass*, 17(2023, 7), <https://doi.org/10.1111/soc4.13082>(접속일: 2023. 7.4).

로 신앙 여정을 함께 걷은 이들로서 청소년에 대한 경청을 넘어 그들과의 인격적 친교와 상호 배움의 과정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교회를 시노드적 교육 사목 공동체로 구현하는데에도 중책을 맡게 된다.

1.3.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청소년의 ‘판’: 능동적 복음화 주체로서의 청소년

청소년 사목이 청소년의 주체성과 교회 공동체의 동반자성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자율적이고 공동체적인 ‘판’이 요청된다.⁴⁶⁾ 지침서는 이를 청소년들에게 “흥미롭고 유익한 판”⁴⁷⁾으로 제시한다.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또래 간의 인격적 만남(encounter)의 문화로서 이 판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친교를 나누고 동반을 통해 자극받음으로써 사명을 구체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기초적인 활동의 장이 될 수 있다.⁴⁸⁾

지침서는 판을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⁴⁹⁾으로 정의하며 공간적 개념을 강조한다. 하지만 판의 의미는 시노달리타스의 관점에서, 무엇보다 성령의 그르심과 이끄심이 이뤄지는 ‘영적 친교와 신앙 체험의 모판(*alma mater*)’으로 보아야 한다. 성령께서는 친교, 사귄, 나눔, 봉사, 헌신이 이뤄지는 ‘판’ 안에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에게 신앙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영감과 생기(*ruah*)를 불어넣어 주신다. 이로써 청소년들은 하느님과의 친교와 또래, 교회 공동체와의 친교를 심화하고 이로부터 고유한 사명을 발견하고 성장하여 구체적인 세속의 삶의 자리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섭리에 참여한다. 요컨대, 지침서가 제시하는 판은 공간적 개념의 만남과 놀이의 자리로부터 확장되어 성령의 주도권 아래 청소년들이 고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신들의 기개와 꿈, 바람과 끼(탈렌트), 각자의 소명과 비전을 나누며 특히 자신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주도적으로 낼 수 있는 역량 강화와 권한 부여가 이뤄지는 모판(못자리, “플랫폼”⁵⁰⁾)이라는 관계적-공간적 장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46) 오세일은 청년 세대 행복의 요건으로서 ‘성찰성, 진정성, 자율성에 기반한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 (오세일, 「행복과 영성에 관한 사회학적 고찰: 한국 청년세대 연구를 향한 시론」, 『인문사회21』, 6(2, 2015), 463-489.)

47)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101항.

48) Ibid., 87항.

49) Ibid., 11항.

50) Ibid., 101항.

이 관에서 청소년들은 적절한 동반자성과 능동적 참여를 통해 삶으로부터 터득된 신앙 감각의 활성화로 예수님께로 동화되고, 신앙인 정체성을 내면화하며, 이를 자신의 능동성을 통해 표현하는 선순환의 과정 속에서 또래 사도로 성장한다.⁵¹⁾

지침서에 따르면 특히 본당은 청소년들에게 “그들만의 편안하고 안전한 자리”⁵²⁾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그간 신앙 전수를 위한 교육의 장이었던 주일학교 중심의 본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총체적인 계시를 “믿을 교리로 환원하고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가르치고, 믿어야 할 계명과 의무를 부과하는”⁵³⁾ 집단 교육의 장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교육 방식은 더 이상 흥미 유발이나 청소년을 신앙체험으로 이끄는 데에 한계가 있다.

청소년들의 판은 강요된 지식이나 외적 강제가 아니라 개방된 사랑의 체험과 자유롭고 평안하며 신뢰받는 인격적 관계의 장이다. 외적 강제로 주입되는 계율과 같은 “도덕적, 종교적 의무에 앞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⁵⁴⁾을 체험케 하고, 그에 응답하는 사랑의 덕을 감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 동반과 친교는 자연스럽게 진리를 강요하지 않되, 참된 자유로의 초대와 기쁨과 격려, 활력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이다.⁵⁵⁾ 일찍이 요한 보스코 성인은 오라토리오의 형식을 통해 사목과 신앙 교육의 장을 “청소년들에게 신뢰와 친숙함을 느끼게 하는 집이요, 선포되는 복음 안에서 신앙체험이 이루어지는 본당이며, 일상의 삶을 준비시키는 학교요, 청소년들이 우정과 신뢰를 쌓고 다지는 자연스러운 운동장과 같은”⁵⁶⁾ 곳으로 청소년에게 개방했다.

51) Ibid., 48-50항.

52) Ibid., 74항.

53) 박진상, 「새 『교리교육지침』과 한국 천주교 청소년 교리교육의 방향」, 『신학과 철학』, 42(2022), 216.

54)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20항.

55) 프란치스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33항;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20-113항.

56) 살레시오회 청소년사목부, 『살레시오 청소년 사목-기틀』,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2013), 152-154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101항 재인용).

요한 보스코 성인의 오라토리오 청소년들이 함께 기숙하며 생활하는 전례와 교육, 기도, 놀이의 장소였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에서 본당 사목과 연계된 오라토리오 주일학교 제도를 넘어 교리 공부, 전례 거행, 함께하는 놀이의 통합적인 장이라 할 수 있다. 오라토리오 주일에 성당에 오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체제와도 맞물려 살레시오 공동체가 운영하는 (본당 안팎의) 방과후 학교를 찾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환대한다. 오라토리오 학과 공부 보충, 교리 교육, 전례 시기에 맞는 행사, 그리고 동반자가 함께하는 자유로운 놀이 시간을 제공한다. 동반자는 활동 중 소외되거나 상태가 좋지 못한 이들을 특별히 돌보며,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과정을 통해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로 이끌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한다.

관을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본당 등의 교회 공간에서 마음 편하게 환대받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과 놀이, 관계 맺기와 시간 보내기가 가능한 ‘열린 공간’은 중요하다. 그 공간은 인격적 동반이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장이자 또래들이 모여 능동적으로 신앙을 매개로 자신의 끼를 발산하고 추억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성령의 그노스름 안에 동화되는 고유한 신앙의 역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당, 또는 교회가 마련한 어떤 공간이 주일에 잠시 짧게 왔다가 가는 일상과 유리된 공간이 아니라 언제나 눈치 보지 않고 가서 쉴 수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있으며, 잠시 기도도 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공간일 때 그곳은 환대와 친교, 쉼의 공간으로 자리 잡는다. 아울러 그곳에서의 어울림과 친교가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동반자와 공동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을 조성해 주는 것은 공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넘어 또래 사도로서 일상 속의 복음 선포의 신앙생활로 넘어갈 수 있는 거점과 기반이 될 수 있다.

요약하면, 청소년만을 위한 환대와 개방의 공간과 그 안에서 무엇이든 체험해볼 수 있도록 지탱하는 청소년 관은 지침서가 중시하는 청소년의 주체성과 인격적 동반을 위한 기초 구조이자 관계성의 총체이다. 그 관 안에서 체험하고 회노애락을 나눴던 관계와 사건은 켜켜이 쌓여 자신의 신앙 역사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인격적 관계를 심화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 따라서 동반자의 지원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청소년 활동이 가능한 안정적이고 개방된 교회 공간과 그 안에서의 활동을 독려하는 제도적, 관계적 관은 청소년 사목의 쇄신을 위한 기초 구조인 것이다.

2. 청소년 신앙 생활에 관한 통계 분석

본 연구는 지침서 발간을 위한 예비조사로서 2016년 실시된 “청소년사목 지침서를 위한 전국 단위 양적 연구”⁵⁷⁾ 데이터를 기초로 청소년들의 하느님과의 인격적 관계 형성과 이에 따른 사명 실천을 두고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새로운 통계 분석 모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신자 중 청소년 사목 관련자 총 5,343명의 응답자 중, 자신을 중고등학생으로 밝힌 1,995명만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통계 분석을 실행

57) 해당 조사에 대한 표집 방식과 주요 결과는 다음을 참조할 것. 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지침서 분과, 『청소년사목 지침서를 위한 질적 양적 연구 통합보고서』, (배포자료, 2017).

하였고⁵⁸⁾, 이를 통하여 부모님이 기도와 명상을 많이 하는 가정의, 성당과 교리 반에 오면 마음이 편한 청소년들이 신앙 감각에 더 깨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래의 <표 3-1>과 <표 3-2>는 가톨릭 청소년의 하느님과 인격적 관계와 사명 실천에 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종속변수는 ‘신앙감각과 식별’ 그리고 ‘사명 수행’이라는 두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의 ‘하느님 체험과 영적 식별’ 그리고 ‘사명 의식에 따른 봉사과 실천’이 각각 세 항목씩 선별되었다. (참고로 각 문항의 원 응답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하여 변수를 이분화시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⁵⁹⁾을 실시하였다. 각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청소년 응답자들이 각 문항(종속변수)에 긍정 응답(매우 그렇다, 그렇다)을 할 승산비(odds ratio)⁶⁰⁾를 보고한다.)

독립변수로는 개인, 가족, 교회라는 세 차원의 변수들이 투입되었는데, 개인 차원에서는 신앙체험, 기도, 미사참여 등을 투입했고, 가족 차원에서는 부모의 성당 활동과 기도 생활, 교회 차원에서는 성당과 교리 반이 편만한 정도가 반영되었다.⁶¹⁾

해당 변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측정되었다. 개인 차원의 변수 중 ‘가정 형편’은 “여러분의 가정 형편(경제 수준)이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로 제시된 5점 척도 문항으로서 1점 “상”부터 5점 “하”를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건진성사 받음’은 “건진성사를 받으셨나요?”에 관한 “예”, “아니오” 질문을 더미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준거 집단은 건진성사를 받지 않은 청소년이다. ‘관공성사 참여’는 “나는 부활 성탄 판공에 반드시 참여하고 있다.”에 관한 4개 보기 문항을 ‘한다’, ‘하지 않는다.’로 재코딩하여 더미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준거 집단은 하지 않는 청소년이다. ‘미사 참석도’는 “얼마나 자주

58) 각 독립변수 결측치는 약 10%를 초과하지 않아 다중 대체(multiple imputation) 기법을 통해 보충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는 지면상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추론통계인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강조코자 한다.

59)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 경우에 사용되는 통계 분석 방법이다. 예를 들어, 성공 또는 실패, 발병 또는 비발병, 구매 또는 비구매 등 이진 결과를 예측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통계 기법이다. 특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승산비를 계산하여 종속변수의 발생 확률을 예측한다.

60) 승산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발생하지 않은 확률로 나눈 값이다. 승산비는 두 집단 간 승산의 비율이다. 이항 로지스틱 다중회귀분석에서 승산비는 다른 투입변수를 고정한 채, 한 독립변수가 1단위 증가할 때 기존 값을 택한 집단과 1단위 높은 값을 택한 집단 간 종속변수 승산의 비율로 해석한다. 승산비가 1이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승산비가 1보다 크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승산비가 1보다 작으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61) 더 자세한 변수의 문항 구성 방식과 응답 분포 등은 다음 보고서를 참조할 것. 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지침서 분과, 『청소년사목 지침서를 위한 질적 양적 연구 통합보고서』, (배포자료, 2017).

미사에 참례를 하십니까?”에 관한 1점 “전혀 하지 않음”부터 11점 “하루에 여러 번”까지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기도 빈도’는 “나는 매일 기도(아침, 점심, 저녁기도, 삼중기도 등)를 하고 있다.” 문항을, ‘성경 읽기 빈도’는 “나는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고 있다.”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두 문항의 보기는 ‘미사 참석도’와 같은 11점 보기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차원 변수 중 ‘부모의 성당 활동’은 “우리 부모님은 성당과 관련된 곳(부서)에서 일을 한다.”로 제시된 5점 척도 문항으로서 1점 “매우 그렇다.”부터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부모의 기도 생활’은 “부모님은 열심히 기도와 명상 등을 한다.”로 제시된 5점 척도 문항으로서 ‘부모의 성당 활동’과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성당과 교리 반이 편한 정도는 각각 “나는 성당에 오면 마음이 편하다.”, “나는 교리 반에 오면 마음이 편하다.”로 제시된 7점 척도 문항으로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표 3-1> 가톨릭 청소년의 하느님과의 인격적 관계와 사명 수행에 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신앙 감각과 식별					
		1)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살아 계시며,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		2)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다.		3) 무엇을 판단할 때, 하느님 뜻에 맞는지를 생각해 본다.	
		B	승산비	B	승산비	B	승산비
(Intercept)		-4.71		-5.24		-6.16	
개인	여성	0.36**	1.43	0.14	1.15	0.03	1.03
	가정 형편	0.26**	1.29	0.21**	1.23	0.21**	1.23
	건강성사 받음	0.07	1.07	-0.14	0.87	-0.23*	0.80
	판공성사 참여	0.89***	2.43	0.74***	2.09	0.30	1.35
	미사 참석도	0.03	1.03	-0.00	1.00	-0.04	0.96
	기도 빈도	0.06***	1.07	0.04*	1.04	0.06***	1.06
	성경 읽기 빈도	0.07**	1.08	0.05*	1.05	0.03	1.03
가족	부모의 성당 활동	0.02	1.02	0.07	1.07	0.08*	1.09
	부모의 기도 생활	0.10*	1.10	0.16***	1.17	0.15***	1.17
교회	성당이 편안한 정도	0.44***	1.55	0.44***	1.56	0.59***	1.81
	교리 반이 편안한 정도	0.05	1.05	0.14**	1.15	0.14**	1.15
Log Likelihood		-961.570		-1126.125		-1165.850	
Deviance		1923.140		2252.251		2331.699	
Nagelkerke R ²		0.180716		0.201154		0.231947	
N		1962		1959		1954	

*p < .05; **p < .01; ***p < .001

<표 3-2> 가톨릭 청소년의 하느님과 의 인격적 관계와 사명 수행에 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사명 수행 (봉사와 실천)					
		4)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알고 있다.		5) 나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봉사하고 실천할 수 있다.		6) 나는 가난하거나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	
		B	승산비	B	승산비	B	승산비
(Intercept)		-3.70		-3.74		-3.28	
개인	여성	0.32**	1.38	0.29**	1.34	0.37***	1.45
	가정 형편	0.15	1.16	0.16*	1.17	0.14*	1.15
	건강성사 받음	0.15	1.16	-0.15	0.86	0.00	0.84
	판공성사 참여	0.25	1.28	0.69***	2.00	0.18	1.19
	미사 참석도	0.09	1.09	-0.02	0.98	0.00	1.00
	기도 빈도	0.02	1.02	0.03	1.03	0.02	1.02
	성경 읽기 빈도	0.04	1.04	0.06*	1.06	0.02	1.02
가족	부모의 성당 활동	0.05	1.05	0.01	1.01	-0.02	0.99
	부모의 기도 생활	0.13*	1.13	0.12**	1.13	0.08	1.09
교회	성당이 편안한 정도	0.35***	1.42	0.35***	1.42	0.26***	1.30
	교리 반이 편안한 정도	0.12**	1.13	0.14**	1.15	0.18***	1.20
Log Likelihood		-890.770		-1082.757		-1247.179	
Deviance		1781.539		2165.515		2494.357	
Nagelkerke R ²		0.1388220		0.1510390		0.1153140	
N		1967		1965		1970	

*p < .05; **p < .01; ***p < .001

<표 3-1>과 <표 3-2>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개인 차원에서는 미사 참석 빈도를 제외한 변수들이 각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쳤다. 안타깝지만 청소년들에게 미사 참석은 의무적이거나 강요에 따를 수 있기에, 신앙체험과 직결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된다.⁶²⁾

62) CYA 회장단, 「사목 현장의 목소리1 - 청소년 사목의 주인공 청소년들의 솔직한 이야기」, 『청소년 사목의 현실과 방향』, (서울: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2019), 119-120.

여성 청소년은 남성 청소년에 비해 “하느님의 현존 체험”과 사명 수행 (봉사와 실천) 세 항목에서 더 강한 태도를 보인다. 청소년의 (주관적) 경제 수준은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알고 있다.” 문항을 제외하고⁶³⁾ 모든 종속변수와 정적 관계를 맺는다. 건진성사를 받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무엇을 판단할 때, 하느님 뜻에 맞는지를 생각해 본다.” 문항에 관하여 승산이 낮아지는 안타까운 현상이 보고된다.⁶⁴⁾ 하지만 관공성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살아계시며,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봉사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문항에서 승산비가 두 배 이상 높았다. 성경 읽기 빈도 또한 위의 문항들에서 양의 승산비가 나왔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신앙 감각과 식별에 해당하는 전체 문항에 긍정적인 선택을 할 승산을 높인다.

둘째, 가족 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성당 활동’보다 ‘부모의 기도 생활 (기도, 명상)’이 청소년의 신앙 감각과 신자로서의 사명 수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기도 생활’ 변수는 “나는 가난하거나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인다.⁶⁵⁾ 부모가 단지 성당에서 활동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일상 안에서 기도 생활을 해 나갈 때 청소년 자녀들도 신앙 감각과 식별, 봉사와 실천 지향이 함께 성장한다. 한편, ‘부모의 성당 활동’을 더 열심히 할 때, 청소년 자녀는 “무엇을 판단할 때, 하느님 뜻에 맞는지를 생각해 본다.”는 문항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도 확인하였다.

셋째, 교회 차원에서 볼 때, ‘성당이 편한 정도’는 모든 종속변수에 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⁶⁶⁾ 또한 청소년 신자가 ‘교리 반’을 편하게 느낄수록,

63) 이는 오늘날 청소년, 청년들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능력주의’(meritocracy)를 공정성(fairness)의 원리로 인식하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김상태·김성엽·이상엽, 「청년세대는 공정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 ‘인공궁 사건’에 나타난 공정성 인식의 테마 분석 -」, 『한국행정연구』, 30(4, 2021), 245-277; 정태석, 「능력주의와 공정의 딜레마 : 경험하는 가치관단 기준들」, 『경제와사회』, 132(2021), 12-46.)

64) ‘건진성사’로 인한 신앙적 효과가 없는 현상은 안타깝지만, 이는 코호트 효과로서 건진을 받는 연령대로 올라갈수록, 사춘기가 더 심해지고 세속적 유혹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65)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는 1)~5)까지의 변수에 각각 부모의 기도와 명상 정도에 있어 1~5 (매우 그렇다) 사이의 선택에 있어서 1단위씩 상승하면 각 변수에 있어서 승산이 10%, 17%, 17%, 13%, 13% 증가한다.

66) 1)~6)까지의 변수에 각각 성당이 편한 1~7(매우 그렇다) 사이의 선택에 있어서 1단위씩 상승하면 각 변수에 있어서 승산이 55%, 56%, 81%, 42%, 42%, 30% 증가한다.

하느님 현존의 체험을 제외하고, 자신을 하느님의 작품으로 인식하며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그걸 실천하고자 하는 태도가 더 강해진다.⁶⁷⁾

특히, ‘성당이 편한 정도’는 서열형 독립변수 중에서 가장 승산비가 높은, 즉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된다. 이는 다른 변수보다 성당 자체가 청소년에게 편하고 익숙한 관계적-공간적 판으로 인식될수록 하느님과의 관계나, 이를 기반으로 한 자신의 의식적 판단과 실천 지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리하면 먼저 부모님의 신심 깊은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한 가정 교회의 안정적인 분위기는 청소년의 신앙 감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성당과 성당에서 참여하는 활동, 예를 들어 주일학교가 자신에게 익숙하고 마음이 편안한 장소와 활동, 관계로 체감된다면 거기에서부터 신앙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신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⁶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는 여름이나 겨울에 캠프 가고 행사하면서, 여름에는 주로 수영장, 펜션 이런데 가서 좀 많이 친해지고 가까워진 거 같고, 겨울에도 뭐, 합숙 같은 거 하면서 많이 친해졌죠 그리고 복사 활동으로요. 항상 합숙하면 밤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좀 기도를 하면서 신앙심이 좀 깊어졌던 거 같아요 친구들 만나고, 재미있죠 (다만)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여기 와서는 기도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느낌. (그렇게 편안하고 재미있게 기도를) 습관화를 하는 거죠 (고2, 남성)

위의 연구 참여 청소년이 말하는 ‘캠프’, ‘기도만 하는 공간’ 등의 표현을 두고 신앙 없는 활동과 참여가 불러올 수 있는 악영향을 우려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일선 사목자들에게서 공유되는 ‘캠프 무용론’, ‘행사 경계론’, 지침서가 지적하는 “사목적 대중 영합주의”와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과도 연결된다.⁶⁹⁾ 행사 중심의 주일학교 운영과 사목 방향이 실질적인 청소년의 신앙 심화나 주일학교의 활성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 청소년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고 ‘교회의 위기론’이 심각하게 부각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또래 신앙인 친구, 선·후배들과 함께하는 활동과

67)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는 2)~6)까지의 변수에 각각 교리 반이 편한 1~7(매우 그렇다) 사이의 선택에 있어서 1단위씩 상승하면 각 변수에 있어서 승산이 15%, 15%, 13%, 15%, 20% 증가한다.

68) 심층 인터뷰 조사 방식에 관해서는 각주3을 참조할 것.

69)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11항.

경험, 유대와 친교를 실제적으로 갈망하고 있었다는 점을 직면할 필요가 있다.⁷⁰⁾ 그리고 그들의 신앙 역사에서 그것이 가장 집약된 경험이 ‘캠프’였다. 아울러 엄숙한 성당은 ‘기도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청소년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합숙’이라 표현한 피정에서 ‘묵상’을 통해 신앙심이 깊어졌다는 응답과 같이 또래들과 어울리는 다양한 활동과 체험, 흥미가 기도와 전례, 신앙체험과 적절히 연결될 때는 그들도 얼마든지 신앙에 대한 성찰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고민하게 된다.

결국 청소년 사목에 대한 청소년 당사자들의 기대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성당을 중심으로 모여 친교를 나누고 그 공간과 문화, 관계에 맞을 들이며 신앙으로도 자연스럽게 젖어 들어갈 수 있는 ‘관’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관’은 단순한 놀 자리, 쉴 자리, 여기서 땀어지는 교우 관계에 대한 욕구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거기서 신앙의 단초가 마련되고 하느님 체험을 자연스럽게 배워나가는 가장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는 진입의 장일 수 있다. 진정 성당이 마음 놓고 기도하고 쉬며 무언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놀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된다면, 그렇게 성당과 주일학교 등의 청소년 사목 체계가 편해진다면 그것은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원의와 욕망을 두고 팬데믹 상황에서 본당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한 한 사제의 고백은 곱씹을만하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해야 열심히 합니다. **그 시대의 욕망을 거북하게 봐주는 게 사목입니다.** 에민해져야 하고 관찰하는 눈이 있어야 하죠. 보이면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50대, 서울대교구 사제)⁷¹⁾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이 살아계신 성령의 영감 안에서 자유롭게 평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안정되고 친밀한 동반 여정의 관계가 자라나는 신앙의 못자리’인 ‘관’이 매우 중요하다. 각자 고유한 신앙의 원의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환대받아 성당에 평안하게 머물고 신앙체험을 키우며 (성령님께서 더불어 활동하시며 생기를 복돋아 주시는 가운데), ‘동반 여정’을 만끽하는 시공간, 문화, 관계로서의 ‘관’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단지 성당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경우와는 질적으로 다른 함의를 갖는다.⁷²⁾ 성당과 그 안에서의

70) Ibid., 106항.

71) 정규현·오세일,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 사목 패러다임의 전환」, 192.

72) 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 지침서 분과, 『청소년사목 지침서를 위한 질적 양적 연구 통합보고서』,

활동이 입시와 세간의 경쟁 사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청소년에게 휴식과 위안, 능동적 활동의 장을 제공해 주어 그들에게 쉼터이자 놀이터, 아지트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곳에 청소년을 동반해 주는 부모와 사목자, 봉사자가 함께하며 신앙에 대한 성찰과 나눔 속 친교를 체험한다면 이는 침체된 신앙생활과 양성에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3. 시노드적 동반 여정의 모델 - 청소년 사목 판의 구체화

청소년 사목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앞서 논의한 인격적 동반과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판의 구현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를 두고 사례들을 구분하여 네 가지 모델을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열린 공간의 사목’, 둘째 ‘소규모 인격적 동반 사목’, 셋째 ‘자발적 역할 체험의 사목’, 넷째 ‘사명 실천의 사목’이 그것이다.

첫째, ‘열린 공간의 사목’은 청소년 친화적 공간의 마련과 확대를 강조하는 모델이다. 의정부교구의 청년 공간인 ‘에피파니아’, 거리의 청소년들을 위한 ‘A지T’ 등은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열린 공간을 체감하게 하고 환대받고 쉬어 가며 자연스럽게 신앙 문화에 젖어 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의 중요성은 일찍이 지자체의 ‘유스센터’와 같은 공간을 통해 그 활용도와 효과가 입증되어 왔다.

이처럼 본당에도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판’을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 예로 서울대교구 세곡동 본당의 경우 중고등부 주일학교 밴드부를 구성하여 언제나 청소년들이 본당에서 편안하게 악기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미사 반주를 위한 연습으로 청소년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벤트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친교가 깊어졌고 소속감, 신앙의 기쁨을 더 고취시키고 있다. 이 결과 신자가 아닌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데려오는 등 긍정적 효과가 늘어나고 있다.⁷³⁾

(배포자료, 2017), 92; 정준교,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의 의의와 과제, 『신학전망』, 220 (2023), 111.

73) 정한결,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주일학교에서 만나려면 (한국 청소년 사목 지침서의 주일학교 적용)», 청소년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지쳐가는 청소년 사목의 EXODUS!!』, (서울: 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및 둔보스코 청소년영성사목연구소), 167.

결국 마치 본당에 오래 다니셨던 노인 신자 분들이 성당에서 편하게 쉬고 어울리시듯이, 청(소)년들이 ‘일회용 노동력’으로 소진되지 않고⁷⁴⁾, 주변인으로 머물지 않으며 어른들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어울리고 자신들의 관심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주도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갖는 사목적 함의는 매우 크다 하겠다.⁷⁵⁾

둘째, ‘(소규모) 인격적 동반 사목’은 사제나 수도자, 친밀한 청소년 동반자와 함께하는 나눔을 통한 모델이다. 실제로 수원교구 부곡동 본당의 ‘아르스콜링’⁷⁶⁾, 서울대교구의 ‘나다’ 등 소규모 청소년 모임에서 이들은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고 사유를 자극받으며, 목사를 통한 삶으로부터의 나눔을 체험하고 있다. 이때 동반자들은 긍정과 경청, 지지를 통해 영적 친교를 형성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자신만의 고유한 소명을 발견하고 삶을 식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해 준다.⁷⁷⁾

한편 필자도 청소년 사목에서 ‘인격적 동반’이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미주 북가주 지역 한인 청소년 사목 팀에서 가톨릭대학생 연합회는 매년 여름 방학 동안 주일학교 캠프를 2박 3일 치러 왔다. 거기에 참가하는 청소년 중에는 술, 담배를 일삼고 캠프 중에도 몰래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제법 많았다. 그 상황에서 청소년 사목 팀은 그들을 어떻게 훈육을 할 것인가? (군사독재 시절처럼) 매를 들고 엄벌할까? 이것도 폭력일 수 있으니, 그냥 조용히 퇴소를 시켜 버릴까? 소위 비행 청소년들을 마주한 대학생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들과 밤새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들어 주었다고 한다. 그다음 날 밤에도 또 만나서 또 그렇게 얘기를 들어 주었다. 이 사랑의 동반을 통해 부모에게서 온전한 사랑과 관심을 못 받고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던 이들 청소년의 가슴에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주일학교 캠프에 참석한 무수한 청소년들은 한결같이 “나도 대학생이 되어서 저런 형, 누나들처럼 봉사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심포지엄 발표자 중 하나였던 세곡동 교사 정한결은 청소년들이 “교회에 자신들만의 공간이 있음을 느끼고 서로 인격적인 친교를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당에서 자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4) 정준교,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의 의의와 과제, 105.

75) CYA 회장단, 「사목 현장의 목소리1 - 청소년 사목의 주인공 청소년들의 솔직한 이야기」, 116.

76) 이재훈, 「수원교구 부곡동본당, 청년·청소년 대안교육 ‘아르스콜링’ 눈길」, 『가톨릭신문』 (2022년 4월 10일), 제3289호 2면,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67567&acid=178 (접속일: 2023. 4. 8).

77) 프란치스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41항;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91·107항.

것을 필자는 들을 수 있었다.

셋째, ‘자발적 역할 체험의 사목’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체험하고 신앙생활에 맛을 들이도록 힘을 북돋아 준다(empowerment).⁷⁸⁾ 인천교구 청소년 사목국은 바다의 별 축제, 여기 모여, 전례음악축제 등을 통해 청소년의 자치활동과 능동적 전례 참여, 일상 속 자발적인 과제 선정과 실천 등을 신앙과 연결지어 성취감과 신앙 감각의 심화를 동시에 함양하도록 이끌고 있다.⁷⁹⁾ 아울러 수원교구의 한 지구에서는 지구 연합 청소년 미사를 위해 결성된 밴드가 이후에도 해산하지 않고, ‘판’ 위에서 자발적으로 자치 조직을 만들어 지구 내 본당에 초대받아 반주 봉사를 하고, 지역에서 버스킹도 하면서 신앙을 심화하고 친교를 다지고 있다. 대표를 맡고 있는 청소년의 “‘하느님은 늘 뒤에서 말없이 지켜봐 주시는 분 같다.’면서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의지할 곳이 생기고 짐을 덜 수 있는 것 같다.’”⁸⁰⁾는 인터뷰는 그들의 활동이 하느님 없는 재미 위주가 아니라 그 재미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느님을 만나 가는 과정임을 가리킨다. 즉, 여러 본당의 연합 행사나 체험 프로그램 (예를 들면 사회사목 체험 박람회) 등은 청소년끼리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청소년이 흥미 있어 하는 영역에서 거룩한 지향을 담아낼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 주는 사목으로 고려될 수 있다.

넷째, ‘사명 실천의 사목’은 청소년들이 세상의 문제를 식별하고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신앙 안에서 구성된 인권 증진 및 사회적 나눔이나 봉사를 위한 모금 운동과 체험 활동은 그 자체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다.⁸¹⁾ 특히, 청소년들이 기획 과정에서부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사명 실천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현실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갔

78)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108항; CYA 회장단, 「사목 현장의 목소리 I - 청소년 사목의 주인공 청소년들의 솔직한 이야기」, 116.

79) 김용수, 「청소년과 세상의 복음화를 위한 인천교구 청소년 사목의 동반 사례」, 청소년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지쳐가는 청소년 사목의 EXODUS!!』, (서울: 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 및 돈보스코 청소년영성사목연구소), 142-143.

80) 이승훈, 「중고등부 밴드에서 봉사하는 조성검군」, 『가톨릭신문』(2022년 9월 4일), 제3309호 2면,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72694&acid=847(접속일: 2023. 4. 8).

81) 이주연, 「수원교구 보정본당 중고등부, 목주 팔찌 제작·판매」, 『가톨릭신문』(2022년 6월 19일), 제3299호 2면,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70155&acid=178(접속일: 2023. 4. 8); 이주연, 「수원교구 공도·보정본당 중고등부, 교구 해외선교실에 기부」, 『가톨릭신문』(2022년 7월 10일), 제3302호 1면,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70898&acid=178(접속일: 2023. 4. 8).

던 방식을 연결해 주고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위해 활동해 볼지 CYA를 중심으로 스스로 결정해 볼 수 있게 하는 동반 여정 작업 등이 가능한 것이다. 인천교구의 사례를 들면 해안 정화 활동, 외래종 제거 활동, 국제 자원봉사활동, 수익금 기부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 사랑과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뜻에 맞게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판을 제공하고 있다.⁸²⁾ 서울대교구에서는 매년 청소년 노동권리 교육을 제공하여 참가 청소년들이 신앙의 관점으로 노동 가치와 권리를 교육받고 체험하며 (자신을 둘러싼) 노동 현실에 관한 신앙인의 자세를 정립하고 있다.⁸³⁾

나가는 말: 성령 안에서 동반 여정을 향한 새로운 모색

본 연구는 청소년 사목을 시노드 정신에 따라 쇄신하고자 먼저 청소년 사목의 현실태를 분석·진단하였다. 이어서 지침서의 내용을 시노드적 관점에서 청소년 사목의 동반 여정으로 강조하여 또래 사도 양성과 이를 위한 인격적 동반과 청소년 주도의 자율적 판의 중요성이라는 세 차원에서 조망하고 경험적으로 그것이 청소년 신앙 심화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폈다. 아울러 실제 적용 사례들을 구분함으로써 적용을 위한 참고 사목 모델들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경험 연구를 통해 확인한 부모의 신앙 성숙에 따른 영적 동반과 성당에서의 편안한 정서적·관계적·공간적 안정성은 청소년들이 신앙 감각을 깨우치는 데 주요한 변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인격적 동반은 가정 교회에서부터 굳건하여 교회 공동체에서 통합적으로 사목자와 청소년 사목 봉사자들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그것은 청소년만을 위한 판의 안정성 및 자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청소년 신앙 성숙을 이룰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이에 관한 사례로서 ‘열린 공간의 사목’, ‘소규모 인격적 동반의 사목’, ‘자발적 역할 체험의 사목’, ‘사명 실천의 사목’이라는 네 가지 모델을 구분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선 청소년 사목의 구조 개혁을 위한 의식적·제도적 쇄신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무엇보다 사목자와 청소년 사목 봉사자(교리교사) 그리고

82) 김용수, 「청소년과 세상의 복음화를 위한 인천교구 청소년 사목의 동반 사례」, 147-149.

83) 이주엽, 「신경화 강사 “청소년은 노동 약자...가톨릭교회 노동권리 교육 관심 커져”」, 『cpbc』 (2020년 1월 15일), <https://news.cpbcc.co.kr/article/771185>(접속일: 2023. 7. 4).

가족의 입장에서 청소년이 교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방식 안에서 성령의 활동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정성 있는 동반’의 실현이다.

진정성 있는 동반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담대한 발언과 주도적 신앙 성숙을 위한 기성 교회 공동체의 담대한 개방성과 포용성을 필요로 한다. 이는 ‘어떻게 청소년에게 정돈된 교리를 효과적이고 손상되지 않게 이식, 전수할까?’의 고민에서 ‘어떻게 유일무이한 그들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통해 그들의 삶과 잠재력을 고유한 충만함(구원)으로 함께 나아가게 할까?’로 전환하는 태도를 의미한다.⁸⁴⁾ 이러한 전환과 쇄신에는 시노드 정신에 입각한 ‘파레스시아(*parrhesia*)’(에페 6, 19-20; 사도 4, 31)가 필요한데, 이는 동등한 인격적 소통 안에서 자유롭고 진정성 있게 발언하고 행동할 상호 친교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⁸⁵⁾ 이는 영적 세속성과 대중 영합주의에 대한 수세적인 과도한 경계와 관리자적 태도인 회색의 실용주의적, 성직주의적 태도를 지양하고 청소년들을 진정 섬길 수 있는 파레스시아로써 가능하다.⁸⁶⁾

기실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평신도에게 세속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소명(*calling*)의 경험적 토대가 된다.⁸⁷⁾ 청소년 하나하나가 고유하게 처한 세상 속 삶의 자리(*Sitz in Leben*)에서 자기의 고유한 소명을 찾아 가는 세속적 전망에 대한 욕구는 성숙이분법적 관점에서 교회에 의해 교정되어야 할 죄악의 근원이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청소년 각자에게 바라시는 고유한 몫으로서 삶의 자리로부터 체득하는 성령의 영감에 따른 소명의 원천으로 여겨져야 한다.⁸⁸⁾ 또한 사목자들은 담대한 개방성과 포용성, 경청을 기반으로 청소년 사목에 관한 의식과 문화의 전환을 요청받고 있는데,⁸⁹⁾ 특히 청소년으로 하여

84)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Evangelii Gaudium*, 2013), 274항; 프란치스코, 『모든 형제들』 (*Fratelli Tutti*, 2020),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 195-196항.

85)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Evangelii Gaudium*, 2013), 259-261항; 주교대의원회의, 세계주교시노드 2021-2024 『예비문서(*Preparatory Document*)』,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옮김, (배포자료, 2021), 19.

86) 성직주의와 착종된 실천적 상대주의와 회색의 실용주의, 상상 사목을 넘어서는 사목자의 친교 증진의 영적 리더십에 관한 경험 연구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정규현·오세일, 「사제는 청년들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시노달리타스를 향한 사제 리더십 분석」, 3-42.

87)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Lumen Gentium*, 1964), 31-35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Apostolicam Actuositatem*, 1965), 29항.

88)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Lumen Gentium*, 1964), 36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Gaudium et Spes*, 1965), 43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Apostolicam Actuositatem*, 1965), 2항.

89) 서울대교구 시노드 종합 문서, 『성령 안에서 함께 가는 교회들!』, (배포자료, 2022), 10.

금 동반자의 진정성, 신앙의 삶의 연관성을 체감케 하여 이를 이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담대하고 식별된 신앙 성숙과 성소의 구체화, 전문화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은 성령과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판 위에서 복음화의 단계인 진정한 동화와 내면화, 개인적 표현의 단계⁹⁰⁾로 도약할 수 있다는 담대하고 진정성 있는 신뢰가 필요하다. 이들은 주체성을 갖고 판에서 활동하는 동반 여정의 경험을 통해 내면의 욕구와 양심 속 성령의 이끄심에 의한 성찰과 수정, 쇄신과 성숙의 과정을 겪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속 시대에 대다수 청(소)년의 삶의 현실에서 종교, 즉 신앙과 교회의 가르침은 그 자체로서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⁹¹⁾ 하지만 모든 곳에서 섭리하시는 주님은 그들의 (세속적) 흥미거리와 몰입 대상 속에도 무엇이 당신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영감을 얻고, 무엇이 당신을 따르는 데 필요한 것인지 식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심어 놓으셨다.⁹²⁾ 청소년을 향한 시노드적 담대함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청소년들의 흥미와 욕구와 마주하며 하느님과 자신을 연결하는 통합적 신앙 감각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에 기반한 담대하고 진정성 있는 표현(신앙 고백)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사목의 인격적 지향점인 또래 사도는 양성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느님 안에서 자립, 창발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원인을 ‘멀리 있기’, ‘냉정함’, ‘경직됨’과 같은 교회의 죄와 유혹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⁹³⁾ 또한 “그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⁹⁴⁾라고 역설하며,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90)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49-50항.

91) Charles Taylor, *A Secular A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92) 하느님께서는 명백히 하느님을 거스르는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낸 파괴적 악의 구조에 입각한 문화와 활동 등에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가치를 심어 놓으셨고, 하느님과 관계없이 보이는 문화와 활동 안에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단초를 심어 놓으셨다.

93) 이와 관련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일갈한다.

“아마도 교회가 너무 약하고 자신들의 필요에서 너무 멀리 있으며 자신의 불안에 응답하기에는 너무 빈곤해 보였을 것이고, 아마도 자신에 대해 너무 냉정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며 자기만의 경직된 언어에 갇힌 존재로 드러나 보였을 것입니다. 곧 아마도 세상이 교회를 새로운 요구들을 위해서는 충분치 못한 과거의 잔재로 만들어버린 것으로 보일 것이고, 아마도 교회는 인간의 유년기에는 응답했지만 성인의 연령에 도달한 인간에게는 답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국춘심 옮김, (서울: 솔, 2013), 135.)

를 동반하신 여정(마르 16, 12-13; 루카 24, 13-35)에서 보여주신 ‘진정성(authenticity)’이라는 영적 감각을 강조하였다.

“교회는 각 사람 안에 있는 긍정적이고 선한 열망을, 심지어는 이 경우(교회를 떠나는 사람)처럼 그 사람을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긍정적이고 선한 열망을 강조한다. 하지만 잘못된 결정 안에는 종종 선한 동기가 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만약 교회에 진정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주관적 체험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졌다면 그를 교회의 품으로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진정성에 대한 갈망’일 것이다.”⁹⁵⁾

본 연구는 이와 같 의식적-제도적 전환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동반 여정의 청소년 사목과 양성의 내실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목적 실천을 제안한다.

첫째, 가정과 사목 현장에서의 ‘기도 생활과 나눔’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⁹⁶⁾ 통계 분석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기도 생활이 없을 때 청소년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은 전수되기 어렵다. 또한 (수동적인) 미사 참례만으로는 신앙 감각과 식별, 사명 의식이 성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체험을 강화하고 그에 기반해서 자신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명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기도하는 ‘자유 기도 훈련’이 매우 절실하다. 이는 자신의 삶으로부터 성찰하고 식별하여 체험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사랑을 자신의 언어와 표현, 음성을 통해 고백하는 훈련을 가리킨다. 청소년 교육 현실에서 극히 형식화된 기도 암송을 넘어 교회의 역사로 이어져 오는 영적 보화를 참조하며,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나누며 공동체 기도로 봉헌될 수 있도록 하는 체험이 필요하다.⁹⁷⁾ 기실, 청(소)년은 자기 준거적 태도와 자기 삶의 연관성에 따라 신앙의 실질적인 의미와 가치, 효과를 체감한다.⁹⁸⁾ 또한 기도를 통한 자기 개방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 긍정되고 공감하는 체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초월과 사명을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⁹⁹⁾

청소년 피정 등의 청소년만의 자리는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가정 교회에서는 가족 구

94) Ibid., 136.

95) Ibid., 137.

96)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93항.

97) Ibid., 61항.

98) 정규현, 「청년 세대의 다중 압력의 개인화와 종교성에 관한 고찰」, 『사회이론』 63(2023), 24-34.

99) Jung Kyuhyun / Oh Seil, “Enchanted companionship of Korean Catholic youth amid compressed individualization”, *Sociology Compass*, 17(2023, 7), <https://doi.org/10.1111/soc4.13082>(접속일: 2023. 7. 4).

성원 간 기도-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대상 사목과 청소년 사목의 연계, 유기적-통합적 프로그램 쇄신을 고려해보아야 한다.¹⁰⁰⁾

둘째, ‘생동감 있는 전례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통계 분석을 통해서 청소년에게 단지 미사 참례만으로는 신앙 감각과 식별, 사명 의식이 성장하지 못 한다는 걸 확인하였지만, 그와 반대로 청소년들이 성당 안에서 편하게 느끼는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관계 맺는 ‘관’과 신앙 활동 및 전례의 결합은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을 가장 크게 지지해 준다.

‘생동감 있는 전례 참여’는 미사 전례가 그저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지루한 광경이 아닌 살아 있는 하느님 현존 체험의 장이자, 자신의 노력을 봉헌할 수 있는 거룩한 교환의 장임을 깨닫게 해줄 수 있다.¹⁰¹⁾ 이를 위해 정해진 역할에 대한 수동적 참여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미사 전례에 대한 바람을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리와 그 의미를 일깨워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생동감 있는 찬양을 위한 전례 음악 구성과 연주에 청소년의 원의를 적극 반영하는 것, 거룩한 전례 규범과 예법에 충실한 거행에 있어 청소년들의 역량과 부담을 고려하면서¹⁰²⁾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성스러움을 체험할 여지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셋째, ‘성소의 다양성 고취’는 하느님 체험 및 영적 성장과 직결된다. 세속 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하느님의 희망을 자신의 희망으로 일치시켜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근원적 확신과 신념은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성소로 인식된다.¹⁰³⁾ 특히 인터넷, SNS, AI, Chat GPT 등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가 청소년 각자 각자에게 적실하게 또한 절박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고유하신 사랑과 인격적 동반 체험’이다. 요컨대 청소년은 각자 자기 자신으로서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이며 ‘하느님께서 각자를 위한 꿈과 전망을 갖고 계시다’는 신앙의 비전을 나눠 주는 것은 곧 각자의 고유한 소명과 사명을 살아가도록 복돋아 주는 인격적 동반(companionship of empowerment)¹⁰⁴⁾의 실제적 콘텐츠에 해당한다.

100) M.E.나 아버지 학교, 부모 재교육 등의 성인 대상 프로그램과 청소년 기도 훈련 등의 프로그램 간의 유기적인 기획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61-93항.

102) 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 지침서 분과, 『청소년사목 지침서를 위한 질적 양적 연구 통합보고서』, (배포자료, 2017), 37.

103) 성소로서의 자기 직업에 관한 담백한 고백은 다음의 글을 참조할 것. 김유정 발레리아, 「세상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서울주보』, 2455(2023), 3.

그간 교회에서 ‘사제/수도자’ 성소만을 중시해 왔던 전통을 넘어 청소년들에게 세상 한복판, 세속 사회에서 사명을 수행하는 다양하고 훌륭한 본보기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평신도 사도직의 다양성을 구체적인 직업 활동과 가정 공동체,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참여 등을 통하여 전망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로써 청소년이 사회 문화에 영향을 받아 지향하는 꿈과 장래 희망이 직업으로써의 성화, 노동 영성의 측면에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고유한 소명과 연결되어 충만한 행복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고유한 방편임을 깨달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도울 수 있다.¹⁰⁵⁾

구체적인 제언으로는 성소주일 행사에 각계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지도 있고 덕망있는 평신도들의 멘토링, 토크 콘서트 행사나 각 분야와 신앙이 연결된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본당 차원에서 사회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모범적인 청년 평신도들과의 만남의 자리, 교회 내 다양한 직업과 연계된 작업장 견학 등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본당 공동체에 기여하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판을 통한 신앙의 열매 또한 희망할 수 있다.

이상의 제언들은 시노드적 적용에 입각한 ‘삶의 성찰과 나눔에 기반한 교리 체화’, ‘집단적 일방향의 교육에서 개인적 동반 교육으로의 전환’, ‘자율적이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위한 판의 마련’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향점은 청소년 사목의 시노드적 전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청소년 사목을 대하는 기존 프레임을 쇄신하여 ‘성령의 주도권에 대한 확신’, ‘청소년의 역량에 대한 신뢰’, ‘열린 공간을 기반으로 한 인격적 환대와 동반의 문화’라는 담대한 정책적 기준의 변화가 요청되는 것이다.

부디 청소년 사목의 전환을 위해 시노달리타스에 입각한 구조와 제도, 교육 패러다임의 쇄신, 청소년 사목 동반자와 하느님 백성의 영적 쇄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교회를 통해 또래 사도가 된 청소년들이 하느님을 찾고, 모두가 언제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어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게’ 되기를 기도드린다.

104) 오세일, 「한국 천주교회 위기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과 사목적 제언」, 『사목연구』, 35(2015), 77-109.

10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Lumen Gentium*, 1964), 31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Apostolicam Actuositatem*, 1965), 16-33-35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Ad Gentes*, 1965), 21항.

참고문헌

교회 문헌 및 자료

- 『가톨릭 교회 교리서』 (*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1997),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Lumen Gentium*, 1964),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 _____,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Gaudium et Spes*, 1965),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 _____,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Ad Gentes*, 1965),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 _____,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Apostolicam Actuositatem*, 1965),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 요한 바오로 2세, 『현대의 교리교육』 (*Catechesi Tradendae*, 1979),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0.
-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Evangelii Gaudium*, 2013),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 _____,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Chrisus Vivit*, 2019),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 _____, 『모든 형제들』 (*Fratelli Tutti*, 2020),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
-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 감각』 (*Sensus Fidei in the life of the church*, 2014), 송용민 옮김,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6.
- 교황청 성직자성,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봉사하는 본당 공동체의 사목적 회심』 (*La Conversione Pastorale della Comunità Parrocchiale al Servizio della Missione Evangelizzatrice della Chiesa*, 2020),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20.
- 주교대의회, 세계주교시노드 2021-2024 『예비문서(Preparatory Document)』,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옮김, 배포자료, 2021.
-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간주린 사회 교리』 (*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2004),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복음화 사명과 청소년 사목』,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2018.
- _____,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21.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2020년 청소년 사목 현황』, 서울: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2020.

_____, 『2021년 청소년 사목 현황』, 서울: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2021.

서울대교구 시노드 종합 문서, 『성령 안에서 함께 가는 교회를!』, 배포자료, 2022.

연구 문헌

곽진상, 「새 『교리교육지침』과 한국 천주교 청소년 교리교육의 방향」, 『신학과 철학』, 42(2022), 193-238.

교황 프란치스코, 『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국춘심 옮김, 서울: 솔, 2013.

김관수,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관점에서 바라본 동반자 사목에 필요한 청소년 사목의 실천적 요소」, 청소년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지쳐가는 청소년 사목의 EXODUS!!』, 서울: 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및 돈보스코 청소년영성사목연구소, 123-131.

김상태·김성엽·이상엽, 「청년세대는 공정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 ‘인국공 사건’에 나타난 공정성 인식의 테마 분석 -」, 『한국행정연구』, 30(4, 2021), 245-277.

김용수, 「청소년과 세상의 복음화를 위한 인천교구 청소년 사목의 동반 사례」, 청소년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지쳐가는 청소년 사목의 EXODUS!!』, 서울: 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및 돈보스코 청소년영성사목연구소, 135-156.

살레시오회 청소년사목부, 『살레시오 청소년 사목-기틀』,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2013.

오세일, 「한국 천주교회 위기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과 사목적 제안」, 『사목연구』, 35(2015), 77-109.

_____, 2015, 「행복과 영성에 관한 사회학적 고찰: 한국 청년세대 연구를 향한 시론」, 『인문사회21』, 6(2, 2015), 463-489.

_____, 「시노달리타스를 향한 사목적 회심: 이나시오 영성과 식별의 실천적 적용」, 『신학과철학』, 42(2022), 339-376.

오세일·고태경·전승봉, 「청년세대를 위한 통합적 삶의 질 연구」, 『사회과학연구』, 27(2, 2019), 88-121.

윤만근,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에 등장하는 ‘동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목적 적용: 돈 보스코의 교육학을 바탕으로」, 『신학전망』, 219(2022), 131-174.

- _____, 「동반자 사목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청소년 사목의 실천적 요소」, 청소년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지쳐가는 청소년 사목의 EXODUS!!』, 서울: 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및 돈보스코 청소년영성사목연구소, 105-120.
- 이진옥, 「복음화의 주체로 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청소년 -교회의 쇄신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에 관한 연구-」, 청소년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지쳐가는 청소년 사목의 EXODUS!!』, 서울: 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및 돈보스코 청소년영성사목연구소, 69-91.
- 정규현, 「청년 세대의 다중 압력의 개인화와 종교성에 관한 고찰」, 『사회이론』, 63(2023), 1-48.
- 정규현·오세일,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 사목 패러다임의 전환」, 『가톨릭 신학과 사상』, 85(2021), 147-209.
- _____, 「사제는 청년들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시노달리타스를 향한 사례 리더십 분석」, 『신학과 철학』, 41(2022), 3-42.
- 정준교,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의 의의와 과제」, 『신학전망』, 203(2023), 96-131.
- 정태석, 「능력주의와 공정의 딜레마 : 경합하는 가치판단 기준들」, 『경제와사회』, 132(2021), 12-46.
- 정한결,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주일학교에서 만나려면 (한국 청소년 사목 지침서의 주일 학교 적용)」, 청소년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지쳐가는 청소년 사목의 EXODUS!!』, 서울: 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및 돈보스코 청소년영성사목연구소, 159-169.
- 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지침서 분과, 『청소년사목 지침서를 위한 질적 양적 연구 통합보고서』, 배포자료, 2017.
- CYA 회장단, 「사목 현장의 목소리1 - 청소년 사목의 주인공 청소년들의 솔직한 이야기」, 『청소년 사목의 현실과 방향』, 서울: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2019.

Jung Kyuhyun · Oh Seil, “Enchanted companionship of Korean Catholic youth amid compressed individualization”, *Sociology Compass*, 17(2023, 7), <https://doi.org/10.1111/soc4.13082>(접속일: 2023. 7. 4).

- Smith, C.·Hill, J.·Christoffersen, K., *Young Catholic America: Emerging adults in, out of, and gone from the Chur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Smith, C.·Snell, P., *Souls in transition: The religious and spiritual lives of emerging adul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기타 문헌

- 김유정 발레리아, 「세상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서울주보』, 2455(2023), 3.
- 이승훈, 「중고등부 밴드에서 봉사하는 조성겸군」, 『가톨릭신문』 (2022년 9월 4일), 제3309호 2면,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72694&acid=847 (접속일: 2023. 4. 8).
- 이재훈, 「수원교구 부곡동본당, 청년·청소년 대안교육 ‘아르스쿨링’ 눈길」, 『가톨릭신문』 (2022년 4월 10일), 제3289호 2면,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67567&acid=178(접속일: 2023. 4. 8).
- 이주연, 「수원교구 보정본당 중고등부, 목주 팔찌 제작·판매」, 『가톨릭신문』 (2022년 6월 19일), 제3299호 2면,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70155&acid=178(접속일: 2023. 4. 8).
- _____, 「수원교구 공도·보정본당 중고등부, 교구 해외선교실에 기부」, 『가톨릭신문』 (2022년 7월 10일), 제3302호 1면,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70898&acid=178(접속일: 2023. 4. 8).
- 이주엽, 「신경화 강사 “청소년은 노동 약자...가톨릭교회 노동권리 교육 관심 커져”」, 『cpbc』 (2020년 1월 15일), <https://news.cpbc.co.kr/article/771185>(접속일: 2023. 7. 4).

청소년 사목과 시노달리타스: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의 사목적 적용에 관한 성찰

정규현·오세일

더는 미룰 수 없는 청소년 사목 쇄신의 때에 한국 천주교회는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2021)를 내놓았다. 본 연구는 교회 쇄신 원리인 시노달리타스의 관점에서 지침서를 분석하여 ‘또래 사도의 양성’을 목표로 한 ‘동반자 사목’과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관’을 강조하였다. 청소년은 복음화의 주체로서, 그들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이를 통한 하느님과 이웃과의 친교의 경험은 그들의 고유한 소망을 사명 실천과 일치시켜 또래 사도로 성장케 한다. 이를 위해 가정과 사목 현장 동반자들의 시노드 정신(‘동반 여정’)이 요구된다. 또한 교회는 열린 공동체로서 청소년들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편안하고 안정적이며 자율적인 활동의 ‘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특별히 『청소년 사목 지침서』를 위한 전국 단위 양적 연구』(2017)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신앙생활에 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청소년은 부모의 기도 생활이 깊을수록, 성당 및 교리반이 편안하다고 느낄수록 하느님 체험과 같은 신앙 감각과 사명 수행의 봉사 실천이 높아짐을 검증하였다. 또한 청소년 동반 여정의 사례들을 대별하여 ‘열린 공간의 사목’, ‘(소규모) 인격적 동반사목’, ‘자발적 역할 체험의 사목’, ‘사명 실천의 사목’ 방향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청소년 사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도 생활과 나눔’, ‘생동감 있는 전례 참여’, ‘성소의 다양성 고취’, ‘진정성 있는 동반’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시노달리타스, 청소년 사목, 주일학교, 동반, 교리교육

Youth Ministry and Synodalitas:
Pastoral Adoption of *Directory for Youth Ministry*
in the Korean Catholic Church

Jung, Kyu-Hyun · Oh, Se-Il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released the *Directory for Youth Ministry in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2021) to respond to the renewal of youth ministry. This study analyzed the guidelin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urch's principle of renewal, "Synodality," emphasizing the goal of fostering "peer apostles" through "companion spirituality" and "autonomous and proactive participation." Youth, as the subjects of evangelization, grow as peer apostles by actively engaging in communion with God and neighbors, aligning their unique aspirations with the practice of their mission. To achieve this, the Synodal spirit ("companion journey") of families and companions in the pastoral field is required. Additionally, the Church, as an open community, needs to provide platforms for youth activities that are comfortable, stable, and autonomous by caring of the Holy Spirit. This study specifically conducted statistical analysis on the faith life of youth based on the data set collected from a nationwide quantitative research(2017) for the "*Directory for Youth Ministry*". As a result, findings report that as parents' prayer life deepens and youth feel more comfortable in the church and catechesis, their sense of faith experience, such as experiencing God, and their service in fulfilling their mission through service and charity, increase. Furthermore, by categorizing pastoral cases of companion journeys for youth, the study presented ministerial directions emphasizing "an open space,"

“(small-scale) personal companion” “voluntary role experience,” and “mission practice.” Finally, to activate youth ministry, the study suggests “prayer life and sharing,” “engaging in lively liturgy,” “enhancing the diversity of vocation,” and “authentic companionship.”

Key Words: Synodalitas, Sunday School, Youth Ministry, Companion, Catechism

논문 투고일	2023년 7월 8일
논문 수정일	2024년 2월 3일
논문게재 확정일	2023년 11월 27일
